2017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刘寿任章 蒙于的时

계룡산 갑사 부근 안내지도 제작 및 계룡산 우경 TOP 3

2017. 08. 21

김단은, 김연우, 김재원

지도교사 : 하승현



계룡산 갑사 부근 안내지도 제작 및 계룡산 우경 TOP 3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401 김단은, 1402 김연우, 2402 김재원

1. 탐사의 필요성

가. 계룡산과 계룡 8경

1) 계룡산

계룡산은 충청남도 공주시와 계룡시, 논산시 그리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걸쳐 있는 높이 845m의 산이다.¹⁾ 민족의 영산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는 계룡산은 풍수지리로 따지자면 산태극과 수태극이 공존하고 있고, 위치도 호랑이의 형상을 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배꼽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예로부터 계룡산을 중요시 여기게되었고, 무속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신앙이 집결되어 있기도 하다.

2) 계룡 8경의 정의와 문제점

계룡 8경이란 계룡산에서 가장 빼어나다고 알려진 8가지 경치를 말한다. 이것을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다.

- ① 천황봉에서 바라본 일출 광경
- ② 삼불봉을 하얗게 덮어버린 겨울 흰눈
- ③ 연천봉의 노을
- ④ 관음봉을 싸안고 한가롭게 떠도는 구름
- ⑤ 한여름 동학가 계곡의 숲
- ⑥ 가을 갑사 계곡을 온통 붉은색으로 수놓은 듯한 단풍
- ⑦ 은선폭포가 낙수되면서 하얗게 포망을 일구어내는 물안개
- ⑧ 남매탑에 반쯤 걸린 달의 모습

그런데 이 계룡 8경은 일반인이나 가볍게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천황봉은 계룡 8경에서도 첫 번째로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뛰어난 경치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천황봉은 현재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두 번째 8경인 삼불봉의 흰눈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 내리는, 혹은 내린지 얼마 되지 않은 산을 타야 한다. 마찬가지로 연천봉의 노을과 남매탑의 달을 보기 위해서는 해가 지는 도중, 혹은 해가 진 밤에 계룡산에 가야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산을 오르기 위한 전문적인 장비가 없는 일반인이두 번째, 세 번째, 여덟 번째 8경을 보려고 계룡산을 오르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나. 탐사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을 가볍게 오르는 일반인은 계룡 8경의 절반 정도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계룡산의 다양한 모습을 즐기기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¹⁾ 위키피디아-계룡산, https://ko.wikipedia.org/wiki/계룡산

또한, 계룡 8경의 선정에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등산 전문가들, 계룡산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여하였지만 일반인의 눈에도 과연 계룡 8경이 계룡산 최고의 경치일지는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룡산의 여러 경치를 담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이를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투표를 통해 최고의 경치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룡산의 멋을 전하기 위한 안내용 팜플렛을 만드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였다.

2. 탐사 과정

가. 계룡산 촬영

1) 탐사 코스의 선정

갑사 주변의 코스를 돌아보기로 하였다. 원래 계획은 수통골 부근을 탐사하는 것이었지만 갑사와 동학사를 포함하는 코스를 보는 것으로 일정을 바꾸었고, 그 일정에서마저 차질이 생겨 첫날 탐사하였던 갑사 부근 코스만이 유일한 탐사 코스가 되었다. 탐사 코스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갑사에서 출발하여 용문폭포, 금잔디고개, 삼불봉, 남매탑, 큰배재, 큰골삼거리를 포함한다.



그림 1. 갑사 부근을 대상으로 탐사를 진행한 코스.

2) 사진, 영상 촬영

그림 1에 표시된 코스를 돌아보며 사진을 찍어 두었다. 사진을 찍는 데에는 일정한 규칙은 없었으며, 사진의 다양성을 위하여 탐사를 진행했던 세 명 중 한 명이라도 사진을 찍을 만한 경치라고 판단하면 그때그때 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진을 찍는 것이 향후 팜플 렛 제작 등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촬영기기의 한계로 인하여 사진 중 일부는 파노라마 기법으로 촬영된 것도 있고, 영상으로 기록을 남긴 것들도 있다. 사진과 영상은 iPod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설문조사 진행

촬영한 사진에서 계룡산 우경 중 가장 좋은 경치를 선정할 것이다. 다만 후보로 나올수 있는 사진의 수가 적었고, 계룡산을 전부 돌아본 것도 아니기에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계룡 8경을 다시 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탐사를 진행하였던 부분인 갑사 부근으로 한정하여 상위 3개를 고르기로 하였다. 설문지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다. 안내용 팜플렛 제작

1) 내용 구성

계룡산에도 안내용 팜플렛이 있었는데, 그 팜플렛의 내용을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실제 산행을 하며 필요했던 부분, 산행을 하면서 느끼게 된 내용을 추가해 보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당초 목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통하여 계룡산의 매력을 전하는 것이었던 만큼 제작에 앞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던 사진은 인기도와 상관없이 팜플렛에 넣기로 하였다. 팜플렛을 인쇄하는 것을 상정하였을 때 영상으로 되어 있어 팜플렛에 실을 수 없었던 기록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QR 코드를 이용하여링크를 팜플렛에 실어 놓았다. 또한, 우리가 어떤 코스로 이동하였고 어디서 어떤 사진을 촬영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갑사 부근의 지도에 빨간색 선으로 이동 경로를 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룡산의 우경뿐만 아니라 첫날 산에 아직 남아 있을 때 쏟아진 폭우로 인해 모든 탐사가 중지되고 산행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넣기로 하였다. 중간에 쉴 만한 공간이나 급경사 구간이 있을 때는 지도에 표시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이 팜플렛을 보고 등산을 할 때 조금 더 편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한 것이다.

2) 내용 배치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고민한 뒤에는 이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가능한 한 모든 내용을 다 넣을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목표로 하고 있던 A4 사이즈의 팜플렛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앞뒷면에 전부 넣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넣을 내용을 선정함과 동시에 내용을 배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찍었던 사진은 지도 위에 올리고, 찍었던 곳을 화살표로 가리키게 하였다. 지도 옆에는 계룡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폭우 시 행동요령을 수록해 놓았다. 뒷면에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인기도가 높았던 사진 3장과 간단한 설명,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 각 코스별 난이도를 수록하였다.

3. 탐구 결과

가. 안내용 팜플렛 제작

완성된 팜플렛은 아래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그림 2. 팜플렛의 뒷면. 계룡산의 지도 위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던 모든 사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림 3. 팜플렛의 앞면. 설문조사 결과와 영상의 QR코드, 난이도가 수록되어 있다. 팜플렛을 4번 접을 것을 고려하여 앞면을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사진과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탐사를 통해 얻어진 이렇다 할 결론은 없다. 애당초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팜플렛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고, 결과적으로 팜플렛이 나왔으니 이 연구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탐사는 오히려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첫날의 극심한 체력 저하로 인하여 목적으로 하였던 계룡산을 다 돌아보는 것에 실패하여 갑사 부근만 탐사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충분히 많은 양의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에 응하였던 사람들도 학생이라는 계급에 극심하게 편중되어 있었고, 참가 인원도 적었다. 다음에 이런연구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갑사 부근뿐만이 아니라계룡산 전체에 대한 경치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 될 것 같다.

5. 활동 후기

이번 탐사를 토대로 효과적인 설문조사를 위하여 어떻게 설문 용지를 만들어야 하는지, 산행에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6. 참고 문헌

계룡산, 위키피디아(https://ko.wikipedia.org/wiki/계룡산)